

# 이재명, ‘정년연장·주4.5일제’ 우려에 “갑자기 시행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자신의 ‘정년연장·주 4.5일제’ 공약과 관련해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해선 안 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년연장이나 주 4.5일제를 제가 어느 날 긴급 재정명령으로 확 시행할까 걱정 하나”라고 물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며 “저한테 개인적인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 표가 엄청 생기는 것도 아니다 다 영역별로 차등을 두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정년연장 문제 역시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되면 하자”고 말했다.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행정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행정당국 입장에서 관리하게 편하게 하려고 가진 규제들이 너무 많다”며 “의심을 봉쇄하기 위해 온갖 장치를 만들어 놓는데 그렇게 하면 95%가 엄청난 불편을 겪는다.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 수출 환경과 관련해 정부의 연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재계 건의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각 개별 기업과 산업 분야가 따로 대응하면 각개 격파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며 “국내 기업과 정부도 연합하고 공통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가 단위로도 인근 나라, 일본과 같은 국가 등과 공동 대응이 필요



이재명(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 후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뉴스1

李, 경제5단체장 만나 정책간담회…재계 의견 청취  
“갑자기 시행할 수 없어…일방적으로 할 문제 아냐”  
재계 규제 완화 요구엔 “행정 방향 완전히 바꿔야”  
“민간 주도·정부 지원 시대로 전환” 성장 담론 제시

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선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성장 담론도 제시했다.

그는 “경제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라며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라며 “민간 영역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이후 “지금까지는 잘 배껴서 추격을 해

왔지만 이제 반발 앞서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기를 노력해야 한다”며 “당연히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 새로운 산업 영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기회와 공정, 결과·배분의 공정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해가며 지속적인 성장의 길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외에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는 국민과 각 단체 회원 기업의 의견을 모은 ‘제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이 후보에 전달했다. /뉴스1



권영세(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영세 “11일까지 후보 단일화 안 되면 필요한 결단할 것”  
金 ‘11일 이후 단일화’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계획을 두고 “당으로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오는 11일까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결단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대선 후보 등록(마감) 이전에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서 이재명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후보를 기호 2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한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각자 일주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가진 뒤, 오는 14일 방송 토론회 15-16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한 후보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주장대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0-11일 전에 단일화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김 후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즉시 찾아뵙고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며 “김덕수”가 유일한 필승 카드라고 선언하지 않았나”라며 “그 약속이 바뀌면 정치의 신뢰도, 지도자의 명예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가 주장하는 ‘11일 이후 단일화’는 한 후보가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후보를) 등록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뤄질 수 없는 허구의 사실”이라며 “김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문제없겠지만,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국민의힘 기호 2번은 이번 대선에서 없어지게 된

다”고 말했다.

또 “당내에서 극히 일부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도 주장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이라는 이름, 조직, 선거 수행 능력과 자원을 우리 단일화 후보가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해야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가 우리 당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건 분명하다”면서도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김 후보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면, 김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당 모두가 역사와 국민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초반부터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일관되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한 후보를 불러낸 게 바로 김 후보다. 저희는 경선 초반에 (단일화)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유령 허깨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데, 여태까지 봐온 김문수 선배와 전혀 다른 모습이 다. 이분들이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단일화가 결렬될 경우 당의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지 묻자 “일단 여론조사는 계속한다”며 “11일까지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필요한 결단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당 자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대답하기 그렇다”며 “10일 이후 단일화 부분에 대해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뉴스1

## 민주 “국힘 단일화, 코미디 넘어 막장 사기극… 후보 내지 말아야”

윤호중 “반장 선거만도 못해… 내란 기득권 연장 시도 실패할 것”

강훈식 “대선 포기하고 당권 쟁탈전… 지선 공천권 투쟁 돌입”

전준호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 영입해 나라 망치려 해… 염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막장 사기극” “당권 쟁탈전”이라고 몰아붙이며 공세를 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상황이 코미디를 넘어 한편의 막장 사기극을 보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수와 윤석열은 한사코 싸고 돌더니 당원이 뽑은 대선 후보는 못 찾아내 안달”이라며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지 않을 듯하다”고 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열심히 포장해도 한덕수가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며 “아바위 수준의 알량한 눈속임으로 내란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두 후보가 싸야 할 끝은 감동과 명분도 없는 단일화 합의문이 아니라 내란 방조와 국 정파탄에 대한 진솔한 반성문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국민의힘과 내란 수수 방관 연대가 벌인 이번 자중지란의 본질은 국민의힘 당권 쟁탈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미 대선은 포기했고 지방선거 공천권 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본인 손으로 뽑은 후보를 본인 손으로 축출해 내란 방조자를 쫓은 후

당권을 강화하기 위한 알팍한 수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며 “반성 없는 내란 세력에 맞서 더 무거운 마음으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 전략본부장은 “국민의힘이 4년 전 1호 당원 윤석열을 영입해 나라를 망치더니 이번에는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를 영입해 나라를 망치려 한다”며 “반성도 상식도 염치도 없다. 간판 모델 바꾼다고 원 밥이 씌내 안 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당권 싸움 추태를 보는 데 귀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느냐”며 “국힘은 전 국민 짜증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곡성군

장미로 물드는 하루

All Day Rose

2025. 5. 16<sup>금</sup> - 25<sup>일</sup>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

